

Nr. 2023 - 05-06

감사



Licht und Salz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일곱을 뽑았다.〉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6,1-7

1 그 무렵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자,

그리스계 유대인들이 히브리계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다.

그들의 과부들이 매일 배급을 받을 때에 홀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2 그래서 열두 사도가 제자들의 공동체를 불러 모아 말하였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식탁 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3 그러니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서 평판이 좋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찾아내십시오.

그들에게 이 직무를 맡기고, 4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5 이 말에 온 공동체가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테파노,

그리고 필리포스, 프로코로스, 니카노르, 티몬, 파르메나스,

또 유다교로 개종한 안티오키아 출신 니콜라오스를 뽑아,

6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7 하느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나, 예루살렘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사제들의 큰 무리도 믿음을 받아들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부활 성야 미사 세족식

감사

편집부

비 / **스** 과 소금의 이번호 주제인 ‘감사’를 한참 생각하다 하느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 졌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분별력 있는 정신을 주셔서, 저희 죄인들의 마음에도 감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의 신앙은 얼마나 굳건한 것인지요! 신앙이 뼈처럼 꺾꽂히고 견고한 것이라면, 감사는 살처럼 부드러웁니다. 부드러운 감사는 우리의 굳은 신앙과 함께합니다.

감사는 불처럼 뜨겁게 타오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감사할 때 맑고 시원한 눈물을 흘리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천둥번개처럼 크게 울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감사할 때 부드러운 마음의 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사나운 광풍처럼 휘몰아 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고요한 호흡으로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감사보다 쉬운 일은 없겠지요. 감사는 우리에게 보답을 요구하지 않고,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끝없는 은혜를 받게 할 뿐입니다. 부족함과 허물 많은 우리들에게 하느님은 언제나 감사의 은총을 채워 주십니다.

감사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항상 감사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와 너, 그리고 이곳에 모인 우리들 모두에게 감사의 은총이 가득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

평화

편집부에서 드리는 글

-

사제와 함께 / 허광철 요셉 신부님

-

살아가는 이야기 / 전영민 수산나

세레 소감 / 이수련 아녜스, 김남균 엘리야

새 직원 소개 / 박경하 세셀리아, Frau Bertha Tress

좋은 글 / 임미숙 엘레타 수녀

복음글

공소 글 (에를랑겐-뉘른베르크) / 남창희 이냐시오



2023년 빛과 소금은 아래와 같은 주제로 발행됩니다.

1,2월 시작 (Neuanfang)

3,4월 평화 (Friede)

5,6월 감사 (Dankbarkeit)

7,8월 휴식 (Pause)

9,10월 순교 (Martyrium)

11,12월 성찰 (Reflexion)



Planegg 십자가의 길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언제나 저희 안에 파스카 성사를 이루시어
거룩한 세례로 새로 난 저희가
하느님의 도우심과 보호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얻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진리의 영, 사랑하면 보이나니

허광철 요셉 신부

마은 하는 오월, 성모님의 달 우리
리는 부활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시기는 무엇보다 성령을 고대하는
시기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십자가
의 주님께서서는 이제 부활하신 영, 새로
운 생명의 원천인 성령을 선물하시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과 함께 살
아가는 우리는 하느님을 '알아 보고'
'사랑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하느님께
먼저 감사하게 되고, 부모님을 사랑하
는 이들은 부모님께 먼저 감사하게 되
고, 주어진 삶의 모든 것이 사랑이라 여
기는 이들은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되
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
매입니다. 성령과 함께 하느님께 감사
드리는 시간이 미사이며, 미사를 통해
우리는 다시 성령을 모시고 감사와 사
랑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과 관련하
여 부활 제6주일 복음 거룩한 독서를
여러분께 선물해 드립니다.

읽기 Lect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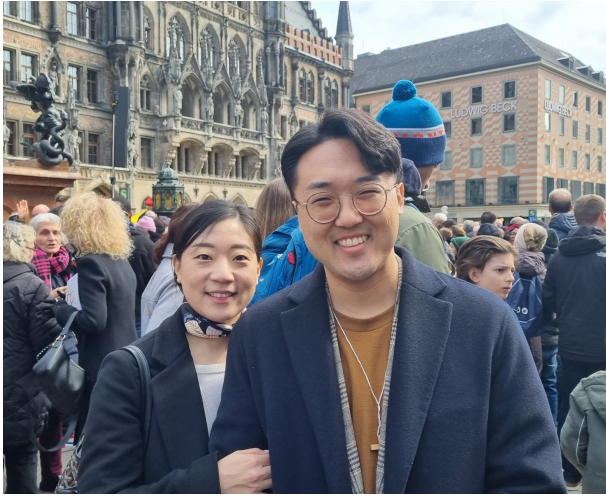
이별을 앞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14-17장)은 성령파견에 대한 약속으로 제자들을 위로한

다. 보호자(15절)로 번역되는 파라클레토스 성령(14,26)은 '진리의 영'(17절)

이시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14,6)라 하시듯 '진리'는 계시의 총체적인 개념이다. 결국 진리의 영이란 하느님의 영이며, 예수님의 영이고, 제자들 안에 들어 함께 머물 '다른 영'이다. 제자들은 이 영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게 된다. 결국 진리의 영은 '믿음'이 있어야만 알아볼 수 있는 영이다.

진리의 영은 무엇을 깨닫게 하는가? 고아가 아니라 사랑하는 누군가(하느님)가 '함께 있음'을 깨닫게 하고(18절), 살아 있음을 깨닫게 하고(19절), 온전한 일치를 깨닫게 하고(20절), 종국에는 사랑의 계명을 살게 한다(15절, 21절). 사랑하면 알게 되고 보이게 되고 움직이게 되는 모든 것, 그것은 진리의 영이 '내 안'에서 작용하신 결과이다.

결국 '서로 사랑하여라'(13,14; 15,12)는 계명을 제자들이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파라클레토스 진리의 영께 자신의 영을 개방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사랑의 계명이 억지로 하는 윤리적 선택이 아니라 하느님 사랑에 의한 재촉임을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는 알려 주신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모양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가 되



십자가의 길 (정인영 세실리아 자매님, 이동현 도미니코 형제님)

고 하느님은 그런 당신 자녀를 사랑하시고 그 안에서 당신을 드러내 보이신다(21절).

묵상하기 Meditatio

성령은 프네우마(Pneuma), 숨이요 호흡이다. 마치 숨 쉬듯 사랑하며 살라고 진리의 영은 우리를 재촉하신다. 프네우마에 대한 바오로의 단어사용은 우리에게 성령을 재인식하게 한다. 13개 바오로 서간에서 프네우마라는 단어는 145번이 나오는데 그 중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 108번이고 나머지는 ‘인간의 영’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령, 하기온 프네우마(Hagion Pneuma)라고 쓰는 곳은 몇 번 되지 않고, 성령 혹은 인간의 영이 될 수 있는 프네우마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쓴다는 것이다. 신약성경 전체(379번)에서도 명확히 하기온 프네우마라 지칭하는

곳은 92번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은 역지로 성령과 인간의 영을 칼로 베듯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강림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리셨지만, 성령의 그릇인 ‘인간의 영’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인간의 프네우마는 ‘믿음으로’ 성령을 자신의 영안에 받아들인다(사세례성사). 그리고 성령은 인간이 자신의 영으로 응답할 때에만 활동하실 수 있기에 신앙인은 잠자고 있는 성령을 끊임없이 일깨울 신앙적 실천(성령청원기도, 견진성사 등)을 해야 한다. 아울러 진리의 영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재촉하기에 성령 안에서 신앙인이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사랑하며 사는 길 밖에는 없다. 사랑하면 보이니... 사랑하면 하느님

이 보이게 되는 것이다.

기도하기 Oratio

(1코린 13장 사랑의 찬가에 대한 묵상)

사랑은 마음입니다.

사랑은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랑은 그를 위해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랑은 그가 채워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가난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가 내 마음에 꼭 찔 때,

내가 그인지, 그가 나인지 모를 때,

그와 내가 하나의 마음일 때,

사랑하는 그와 나는 닮아 갑니다.

사랑은 가시질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라지지 않는 그분이 나의 마음일 때

나의 사랑이 참사랑입니다.

되새기고 실천하기 Ruminatio et Actio

1. 믿음으로 진리의 영을 받아들이는 이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는지 되새겨 봅시다.
2. '나의 영'안에서 잠자고 있는 성령을 깨우는 신앙적 실천을 한가지씩 실행해 봅시다. ■■■



공동체실 부활 성야 미사



Planegg 십자가의 길 2



Planegg 십자가의 길 후 식사

감사의 삶

전영민 수산나

중 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말 하길, 천국은 감사하는 자 만이 가는 곳이란대. 그런데 과연 감사하는 삶, 행복한 삶은 어떤 삶일까?

사람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크게 두가지는 과거에 대한 집착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고한다. 삶에서 마주치게 되는 고통스런 일들을 좀더 폭 넓은 시선으로 보면서 지나간것은 기왕지사로 덮어두고 지금, 오늘에 충실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은 자리할 틈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우리 삶의 과정에 여러가지 난관에 부딪치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톨스토이(러시아의 대 문호1828-1910) 는 이렇게 풀이한다. 고통은 인간을 참된 생활로 인도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될 요소라고...

알렉산더 뒤마가 쓴 '몬테크리스토 백작' 은 복수를 주제로 한 소설이다. 벌써 국민학교 때 감명깊

게 읽었던 이 소설은 맹렬하게 복수하는 백작에게 응원을 가하며 얼마나 통쾌해 했던가. 아직 천진했고 악을 징벌하는것은 당연지사라고 생각을 굳힌 때라면 지금은 그런 아무짝에도 유익할 수없는 것으로 인생의 정점기인 가운데 토막을 오로지 복수의 열기로 진짜 삶을 놓친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든다.

이제, 그만큼 나 자신이 삶의 진 실험에 눈이 떠 졌다는 것일까? 억울하게 갇혀서 살아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최악의 감옥소에서 이유도 모른채 묶여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억장이 무너지고 상상을 초월하는 분노 었을거란 것엔 추후도 이견이 없다. 하지만, 살아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탈출에 성공을했다는 그 자체로 그는 제2의 삶을 선물로 받은 것이다. 그에겐 다시 한번의 기회가 왔고 새로이 받은 선물, 새로운 삶을 복수하는데 급급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유용 했더라면 말이다.

불행 중 다행 이랄까 , 함께 갇혀있던 감옥속에서 고매하고 지식

이 풍부한 한 신부님을 만난다. 그로부터 많은 지식을 전수 받았을 뿐 아니라 그가 죽을 때 보물궤가 숨겨진 곳을 알려주었고 우여곡절 끝에 죽은 신부님의 시신과 자기 몸체를 바꿔치기 하는 것에 성공을 하여 기적적으로 그곳을 탈출 하게 된다.

그에게 제2의 삶을 선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고 지식을 충분히 쌓은 엘리트가 되어 있었으며 기존의 자신을 감추려고 백작이라는 칭호를 스스로 수여 받았던 것이다.여기까지가 해피엔딩으로 과거사에 종지부를 찍고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했더라면 말이다.

그러나, 그의 가슴속에는 오로지 무고한 자신을 감옥속에 억류한 사람들에게 대한 복수의 불길이 타고 있어서 감사할 마음의 눈이 완전히 닫혀 버린것이다. 새로운 불행은 여기서 다시 시작되었고 그 험난한 유배지에서 금자탑을 세웠지만 스스로 그것을 무너뜨린 격이 된 것이다.

예수님께선 원수를 사랑 하라고 하셨다. 참으로 부당하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요구 처럼 들린다. 하지만, 원수를 사랑은 못 할 망정 복수로써 대응하는 이 소설의 주인공을 볼때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면서 까지 보복을 감행하는 그의 어리석음은 원수를 사랑

하라는 예수님의 참뜻을 깨달을 수 있을것같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행위가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진리인것이다.

누군가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한다고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용서를 생각한 그 자체로 하나의 아름다움인것이고 최선을 다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결과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것이다.

누군가로 부터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아프고 며칠이고 고통스러운것은 사실이다. 이럴때, 깊은 성찰을 하면서 나자신 안에서 잘못을 찾아보는 것이 최선이다.

사람은 누구나 먼저 자신을 방어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다지만 한걸음 물러나 객관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타인에게서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것을 터득하게된다.

그렇게 생각이 미치면 그 사람을 축복하게되고 그를위해 기도 할 마음이 생기며 갑자기 가슴속이 확 트이는것을 느낄 수 있다.

방법은 이렇게 간단하다
성인은 태어나면서 부터 성인이 아니고 살아가면서 자기죄를 반성하고 회개를 하는사람이 성인이 될 수 있다고한다.

이말을 다시 뒤집어 본다면 회개하는 사람은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사람은 왜 사는가 ? 결국은 우리 삶의 시간을 어떻게 채우며 사는냐의 문제인데 행복하다는것 성공했다는것 등은 언제까지 지속될수 없는것이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않고 날마다 성장하는것,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할 수있는 힘을 기른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매 시간 새로 거듭나라고 말씀하신다. 탁월함은 완벽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고통이 승화되면 은총이 되는 것이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우리가 하느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없는것과 같은 것이다. 최선을 다한 삶이 잘 준비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않을까? ■■■



공동체실 부활 성야 미사2



마리엔 플라츠 십자가의 길

<여러분은 선택된 겨레고 임금의 사제단입니다.>

▣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2,4-9

사랑하는 여러분, 4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살아 있는 돌이십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느님께는 선택된 값진 돌이십니다.

5 여러분도 살아 있는 돌로서 영적 집을 짓는 데에 쓰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영적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치는 거룩한 사제단이 되십시오.

6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시온에 돌을 놓는다. 선택된 값진 모퉁잇돌이다.

이 돌을 믿는 이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7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이 돌이 값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하는 그 돌이며,

8 또한 “차여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걸려 비틀거리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은 정해진 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 돌에 차여 넘어집니다.

9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된 겨레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신 분의 “위업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세례 소감

김엘리 스텔라

이수련 아녜스, 김남균 엘리야

예수님 부활의 기쁨이 가득했던 이번 부활절, 감사하게도 저희 딸 엘리는 이날 유아세례를 받고 진정한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아직 어리기도 하고 새로운 환경을 낯설어해 많이 울지는 않을까 걱정했던 것과 달리 아이는 마치 세례를 받는 것이 큰 기쁨인지 아는 것처럼 행사 내내 울지 않고 좋아했습니다. 신부님이 이끌어주신 순서에 맞춰 아이의 이마에 물과 기름을 바르고 축복을 받을 때는 그걸 지켜보는 저희의 마음도 뜨거워지고 울컥해졌습니다.

세례는 저희 부부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역시도 모두 유아세례를 받고 평생 가톨릭 신자로 살아오면서 이번 아이의 세례는 자연스러운 것이었지만 돌이켜보면 저희가 부모님께 받은 신앙은 늘 삶의 든든한 위안이었고 버팀목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도 이번 세례를 통해 평생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를 만날 수 있게 된 것 같아 무엇보다 기쁩니다. 비록 아이가 옆에서 났고 배울 만큼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저희가 갖췄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의 부모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꾸준히 미사에 나가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며 아이가 참된 신앙인으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무엇보다 뮌헨한인성당 공동체의 큰 사랑과 축하 속에 세례식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축하해 주신 교우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이 글을 통해 다시 한번 전합니다. 특별하게 행사를 준비해주시고 무

사히 세례식을 마칠 수 있도록 큰 도움 주신 주임신부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김엘리 스텔라 유아 세례



부활 미사 세례식



김엘리 스틸라

새 직원 소개 1

박경하

세실리아 공동체실 실장 (Gemeindehelferin)

오 해부터 뮌헨 공동체에서 저희를 여러방면으로 도와주시게 된 박경하 세실리아 실장님과 베르타 사무장님의 소개글입니다. 환영합니다!

1. 간단한 자기소개

->저는 뮌헨 본당에서 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박경하 세실리아입니다. 전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고, 대학원때부터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12년간 살다가, 독일 남편을 만나 뮌헨으로 이주한지는 벌써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현재는 남편과 아들 Simon과 함께 뮌헨 외곽 Poing에서 살고 있어요.

2. 뮌헨 공동체의 첫인상은 어떠신가요?

->제가 처음 뮌헨 공동체에 방문했을 때가 2013년이었는데, 처음 미사를 보러 왔을때 신부님께서 미사중에 일어나 자기 소개를 부탁하셨어요. 보통 큰 공동체에선 미사에 누가 오는지 지인이 아니면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데, 뮌헨 공동체에선 서로서로가 다 지인들이었고, 신부님과 수녀님을 비롯해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새로오신 분들까지 따뜻하게 환영해주는 분위기가

매우 인상깊었습니다. 소규모의 미사였지만 멋진 성가대와 함께 오래간만에 한국 성가를 부르면서 가슴이 벅찼던 기억이 납니다.

3. 성당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계신가요?

->저는 실장이라는 직함아래 신부님을 보좌하고, 공동체안에서 신앙생활을 위한 일들을 돕고 있습니다. 현재론 미사 전례관련 문서나 주보를 만들고 있고, 신부님과 함께 공소도 방문하고 있고, 다른 공소들과 함께 피정 준비며, 베르타 트레스 사무장님과 함께 재정관련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우선 저를 실장으로 따뜻하게 맞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부님을 중심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뮌헨 공동체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원이 되어 기쁩니다. 마태복음(마태 18,20)에서 주 예수님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

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공동체 안에 항상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느끼며 사랑을 실천하고 하느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길 기도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 1-6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1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2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3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4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5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6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새 직원 소개 2

Frau Bertha Tress

사무장 (Sekretärin)

1.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Bitte stellen Sie sich kurz vor)

->Mein Name ist Bertha, ich komme ursprünglich aus Mexiko. Wegen meines Studiums in 2006 bin ich nach München gekommen. Seitdem lebe ich in dieser schönen Stadt. Ich habe viele Jahre in der Tourismusbranche gearbeitet, musste aber aufgrund der Pandemie eine neue Arbeit suchen. Mit Gottes Hilfe bekam ich eine Stelle in der Diözese, was ein großer Segen war. Ich hatte die Gelegenheit, in der spanischen Mission zu arbeiten, später kam ich in die Chaldäische Gemeinde und jetzt habe ich großes Glück, bei Ihnen zu sein hier in der koreanischen katholischen Gemeinde.

2. 뭘텐 공동체의 첫인상은 어떠신가요?
(Wie war Ihr erster Eindruck von unserer Gemeinde?)

->Mein erster Eindruck von der koreanischen Gemeinde war bis heute

sehr gut,
Vom ersten Tag an traf ich den Pfr. Hu. Ich fühlte mich an seiner Seite sehr wohl und dachte, dass wir ein großartiges Arbeits Team machen würden, da er eine einzigartige und sehr weise Person ist. Nach und nach lernte ich Gemeindemitglieder kennen, alle haben mich herzlich willkommen begrüßt.

3. 성당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계신가요?
(Welche Rolle spielen Sie in der Gemeinde?)

->Als Sekretärin bin ich das Bindeglied zwischen der Gemeinde und der Diözese, kümmere mich um die Buchhaltung, die Materialbereitstellung und einige organisatorische Sachen der Gemeinde. Ich bin hier, um Pfr. Hu und Frau Eisele bei allem zu unterstützen, was Sie brauchen.

4. 마지막으로 모두에게 하고싶은 말씀이있나요?

(Haben Sie zum Abschluss noch ein paar Worte, die Sie an die Leser und Leserinnen unserer **Zeitschrift richten** möchten?)

->Vielen Dank, dass Sie mir die Möglichkeit gegeben haben, zur Gemeinde zu gehören, und ich bin hier, um Ihnen bei allen Sekretariatsaufgaben zu dienen, die Sie benötigen. 매우 감사합니다. :) 🇰🇷🇰🇷🇰🇷



찬미 예수님!

남창희 이나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에를랑겐-뉘른베르크 공동체 남창희 이나시오입니다. 이번 5-6월 월보에 우리 공동체를 소개 하고자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1991년 지역 어르신들과 유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창립되었어요. 유학생들은 학업이 끝나면 잠시 머물렀다 떠나곤 했지만, 초창기부터 중심을 잡고 항상 지켜주셨던 석영숙 모니카 회장님과 나투스키(Naturski)부재님 그리고 함께 봉사해 주신 어르신들이 있었기에 우리 공동체는 건강하게 지금껏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성당에 왔던 2006년도에는 “신자 수가 적어 공소문을 달아야겠다”라고 회장님께서 우스갯소리를 하셨어요. 하지만 그 이후 유학생들이 오고 아이가 있는 가족들이 생기면서 공소에 많은 식구들이 생기고 모두들 가족과 같이 서로 도우며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서로 힘을 모으니 많은 신자가 아니어도 2009년도에는 바이에른주 한인 가톨릭공동체를 모두 초대하여 공소창립행사를 준비했던것이 기억납니다.

많은 손님들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일손이었지만 서로 도우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두세가지 일을 맡아서 해님께서 큰 무리없이 행사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코로나 시기 2021년 6월에는 우리 공동체 **창립 30주년**을 맞았었습니다. 아쉽게도 독일 전역에 내려진 코로나 방침에 따라 창립행사를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창립행사를 대신하여 공동체에서는 작은 기념품을 제작하여 나누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많은 가족들과 유학생들이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신자수가 많이 줄었지만 지금 우리 공동체는 약 60여 명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있는 에를랑겐(Erlangen)과 뉘른베르크(Nürnberg)는 아주 근접해 있는 두 도시로 이루어져 있으며 밤베르크(Bamberg)교구청 관할하에 있습니다.

뉘른베르크(독일어: Nürnberg, 영어: Nuremberg)는 독일 바이에른주에 두 번째로 큰 도시이며 프랑켄지방의 경제적, 문화적 중심지이기도 하며 세계적으로 크리스마스 시장이 유명합니다. 또한 뉘른베르크에는 음악대학(Musikhochschule), 미술대학(Kunstakademie)이 있고 프리드리히 알렉산더(Friedrich-Alexander University) 대학 분교가 있어 많은 한국 유학생이 있습니다.

에를랑겐은 프리드리히 알렉산더대학(Friedrich-Alexander University)이 있는 대학도시로 예전에는 철학 인문학을 공부하고자 많은 유학생이 왔었다면 최근에는 공대에 많은 한국 유학생이 있습니다. 에를랑겐 지역과 주변도시에는 지멘스, 아디다스, 보쉬, 세플러 등등 여러 기업이 있어 많은 한국분이 취업하여 가족단위로 성당을 찾는 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감사의 달 5월을 맞아 우리 공동체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어르신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

리고 또한 미사를 준비해주는 전례부장님, 미사 성가를 이끌어 주는 성가단장님 그리고 성가곡을 연주해 주시는 반주자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싶어요. 마지막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한달에 한번 공소로 오시는 신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에를랑겐-뉘른베르크 공소 창립 30주년 기념 컵



김미라 프란치스카 수녀님 송별회 (에를랑겐-뉘른베르크 공소)



부활 성야 미사 3



에를랑겐-뉘른베르크 공동체 31주년 기념미사, St. Georg Effeltrich



부활 성야 미사 후 단체 사진

주일 미사 안내

민헨 공동체

매주일 15시

Allerheiligenkirche am Kreuz
(Kreuzkirche)

Kreuzstr. 10, 80331 München

에를랑겐/뉘른베르크 공동체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6시

KHG Erlangen 경당

Sieboldstr. 1, 91052 Erlangen

뵐르쯔부르그 공동체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5시

KHG Würzburg 경당

Hofstallstr. 4, 97070 Würzburg

레겐스부르그 공동체

- 매월 넷째 주 토요일 15시

Weiherweg 6A, 93051 Regensburg

공동체 사무실 안내

화, 수, 금 : 10:00 - 15:00

방문 시 카톡이나 전화로 먼저 연락
바랍니다.

Dachauerstr. 23 / 3. Stock
80335 München

Tel. 089 26 05 729

Fax. 089 26 01 83 29

Koreanischsprachige-Mission.

Muenchen@eomuc.de



『빛과 소금』은 여러분의 좋은 글을 기다립니다.

licht.salz@gmail.com

빛과 소금 편집부

김수연 아가타

김진영 암브로시오

문석영 라파엘라

백효현 로사

유재민 노엘

서유리 카타리나